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60 검은색과 생활

“검은색 옷은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색”

●검은색과 복장

우리 민족은 상복을 검정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누런 삼베옷을 입고 장례를 치렀으며, 1934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상례 간소화 정책으로 검은색 리본을 달게 되었다.

영국의 추리 소설가 아가타 크리스티(Agatha Christie)는 그의 비망록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젊은 아가씨들은 첫 무도회에서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으려고 하지만 어머니들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으라고 한다. 어머니는 딸이 귀여운 아가씨로 보이기를 바라지만, 딸은 요부로 보이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검은색 옷을 입으면 성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알제리 출신 패션 디자이너인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은 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검은색은 예술과 패션의 만남을 상징한다.

이탈리아 출신 패션 디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는 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검은색은 단순함과 우아함의 정수(精髓)이다.

독일의 패션 디자이너인 카를 라거펠트(Karl Lagerfeld)는 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검정은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색이며, 검은색 옷을 입으면 안전하다고 했다.

미국 출신 패션 디자이너인 도나 카란(Donna Karan)은 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나는 낮에도 밤에도 검은색 옷을 입는다. 검은색 옷은 언제나 어울리고 인품을 강조한다.

스위스의 여성 화가인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est)는 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검은색 옷을 입는 사람은 내면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요란하게 꾸밀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1950년경 실존주의 세계관은 의복



패션 디자이너 고 카를 라거펠트는 “검정은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색”이며 “검은색 옷을 입으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뉴스스

에서 표현을 얻었으며, 실존주의자들은 검은색 옷을 입었다. 실존주의를 대중적으로 드러낸 여가수 줄리엣 그레코(Juliette Greco)는 검정 패션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검게 칠한 아이라인, 검은 코듀로이 바지, 목까지 올라가는 검은 스웨터를 즐겨 입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에 있는 와그너 색채연구소의 칼턴 와그너(Carlton Wagner)는 변호사들의 옷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는데, 법정에서 변호사의 옷이 검은색이면 배심원들이 변호사에 반대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검은색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이다.

남녀 사이에 헤어질 때 또는 애인에게 안녕이라고 말할 때 검은색 옷을 입고 가면 좋다. 검은색은 “무엇을 하

라고 명령하지만! 내가 잘 알고 있어”라는 메시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색의 메시지는 외부의 영향이나 미지의 공포로부터 해방되며, 극기심이나 자신의 설득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검은색은 내부적으로 집단의 단결력을 과시하고, 외부적으로는 상대에 대해 위협감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즐겨 입는 검은색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연미복에 까만 나비넥타이는 웨이터 복장이다. ‘손님의 까만 나비넥타이’는 출연 초대를 받았을 때만 입는다.

여성이 검은색 옷을 입는다면 그 조건이 까다롭다. 우선 살결이 하얗고, 키가 늘씬하게 커야 한다. 이런 조건의 여성이 검은색 옷으로 단장하면 아주 이지적인 매력을 풍긴다.

검은색 속옷은 아주 적은 방사선만이 작용하여 빛을 전혀 투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오래 입으면 밝은색 속옷보다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 특히 이 색의 속옷은 피부를 찌글찌글하게 주름투성이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익지 않은 토마토 3개를 따서 한 개는 하얀색 천, 또 한 개는 빨간색 천, 마지막 한 개는 검은색 천에 싸서 햇빛이 드는 곳에 놓았다. 얼마 후 검은색 천의 토마토는 초록 그대로 시들어 있었다. 천의 색깔에 따라 익는 정도가 다른 것은 토마토가 필요로 하는 햇빛의 투과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색깔에 대해 사소하게 알고 있지만, 색채에 관심을 가지면 건강과 사업 그리고 멋들의 생활에 필요한 무궁무진한 이득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가을 정취를 오감으로 느껴보는 건 아떨까. ACC@asianculturecenter는 오는 9월4일부터 10월30일까지 계절투어 프로그램 ‘일록달록 ACC 산책’ 투어 프로그램을 총 24회 운영한다. 해설사와 ACC를 걸으며 금목서와 털머위, 꽃무릇 등 다양한 수목의 오색 빛깔과 향기에 관한 설명을 듣는 투어는 꽃 개화시기 및 수중에 따라 다른 동선으로 운영된다. 9월4일부터 28일은 아시아문화광장부터 열린마당까지, 10월2일부터 30일에는 지상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하늘마당에 식재된 수목을 둘러볼 수 있다.



지난 17일 하동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무더위 속 36시간 동안 순찰차에 갇혀 고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순찰차 뒷좌석은 용의자들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잡이가 없다. 또 경찰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잡이가 있는 앞좌석은 칸막이로 막혀있어 탈출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순찰차는 주정차 시 차량 문을 잠가야 하지만, 해당 순찰차는 문이 열려있었다. 또 근무 교대 시 순찰차 정장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부분 등 경찰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 속 대기 중 크게 8종류의 미세플라스틱이 떠다니고, 그 중 폴리에틸렌 비율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최초로 발표됐다. 미세플라스틱은 1μm~5mm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자연적 분해가 어려운 합성고분자화합물을 뜻한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을 통해 포장재나 각종 용기에 널리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 평균 개수는 대기 1㎥당 71개였고, 12월의 경우 미세플라스틱 평균 개수가 122개로 가장 많았다. 검출 비율은 폴리에틸렌이 46.6%로 가장 높았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산강에서 녹조 현상이 관찰됐다. 지난주 처음 녹조가 관찰된 영산강 죽산보 인근에는 일주일 새 유해남조류 수치가 1㎥당 1만4000개에서 이번 주 7만7000개로 5배 넘게 증가했다. 주된 원인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꼽힌다.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33도가 넘는 폭염이 20일가량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조 현상이 심하면 인체에 피부질환이나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접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정수 과정에서 녹조로 인한 독소는 대부분 해소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